

국 어

문 1. 다음 각 문장 중 []의 두 말을 서로 바꾸어 쓰기에 부적절한 것은?

- ① 자연 현상의 연구는 [모름지기/마땅히] 실험에 의하여야 한다.
- ② 팀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잠시도 긴장을 [풀어서는/낮춰서는] 안 된다.
- ③ 이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조장(助長)하는] 정치인은 유권자가 심판해야 한다.
- ④ 이번에는 지난 물난리 때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전철(前轍)을 밟아서는] 안 된다.

문 2. 밑줄 친 부분과 같은 한역 속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용적인 성어(成語) 가운데는 중국의 문헌에서 유래한 고사성어(故事成語)와는 달리 우리의 문헌에서만 발견되는 말이거나 우리 속담을 한역(漢譯)한 것들이 있다. ‘홍익인간(弘益人間)’, ‘함흥차사(咸興差使)’는 우리 역사 속에서 형성된 사자성어이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와 같은 뜻의 ‘오비이락(烏飛梨落)’이나 ‘제 눈에 물 대기’와 같은 뜻의 ‘아전인수(我田引水)’는 우리 속담을 한문으로 번역한 한역 속담(漢譯俗談)들이다.

- ① 燈下不明 ② 牛耳讀經
- ③ 帝王切開 ④ 吾鼻三尺

문 3. 다음 글의 주장과 같이 만들어진 광고 카피가 아닌 것은?

러시아 형식주의자인 야콥손은 문학을 “일상 언어에 가해진 조직적인 폭력”이라 말한다. 즉 문학은 일상 언어를 변형하여 강도 있게 하며 일상적인 말로부터 계획적으로 일탈한다는 것이다. 낯설게 하기는 문학 언어를 일상 언어와 구별시켜 주는 근본이다. 우리는 일상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상투성으로 인해 우리의 의식은 고여 있는 물처럼 새롭게 생성되지 못하고 스테레오 타입으로 고정되고 자동화된다. 광고 카피에서 기존의 식상한 표현을 벗어나 놀라움을 준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선 도식적인 공식, 즉 법칙을 파괴하는 창조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문학에서 말한 이것과 같은 의미이다.

- ① 난 샐러드를 마신다! (○○유업 - 요구르트 광고)
- ② 이젠, 빛으로 요리하세요! (○○전자 - 전자레인지 광고)
- ③ 차도 이 맛을 안다. (○○정유 - 기름 광고)
- ④ 우리는 젊음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그룹 - 기업 광고)

문 4. 다음은 신문의 건강칼럼 일부이다. ()에 들어갈 적절한 것은?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과 알파 리놀렌산은 인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꼭 섭취해 줘야 한다. 이것이 모자라면 아토피 피부염이나 성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온다. 또 알파 리놀렌산(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면 두뇌와 망막에 필요한 DHA가 부족해 학습능력과 시각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DHA가 머리에 좋다.’는 말은 여기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란 말처럼 전체 지방량이 신체의 25%를 넘으면 문제가 된다. 인체의 혈액이나 조직에 지방 함량이 높아지면 고혈압, 당뇨, 비만, 심장병, 뇌졸중 등 성인병이 생기며, 덩달아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의 발병률도 증가하게 된다.

- ① 다다익선(多多益善) ② 과유불급(過猶不及)
- ③ 전화위복(轉禍爲福) ④ 새옹지마(塞翁之馬)

문 5. 다음 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만약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의 벼를 얻는다면, 나는 마땅히 10년 동안 뽕나무를 심고 1년 동안 누에를 길러 손수 오색 실로 물을 들이리라. 열흘에 한 가지씩 빚깁을 물들인다면, 50일 만에 다섯 가지 빚깁을 물들일 수 있으리. 이를 따듯한 봄볕에 쬔 뒤, 여린 아내에게 부탁해 백 번 단련한 금침(金針)으로 내 벼의 얼굴을 수놓게 하리라. 그런 다음 고운 비단으로 장식하고 고옥(古玉)으로 축을 만들어 아득히 높은 산과 양양(洋洋)히 흐르는 강물, 그 사이에 펼쳐놓고 말없이 마주보다가 뉘엿뉘엿 날이 저물 때면 품에 안고서 돌아오리라.

— 이덕무, ‘선굴당농소’에서 —

- ① “아기자기한 일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간결하게 연결하고 있군.”
- ② “특별한 비유가 없어도 인물들의 행동이 눈에 선명하게 그려 지는군.”
- ③ “아주 절친한 친구와 재회할 날을 기다리며 그 그리움을 읊은 글이로군.”
- ④ “약간의 과장된 표현이 절절한 소망을 드러내는 데 오히려 더 효과적이군.”

문 6.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말과 글은 우리 후손에 물려 줄 귀중한 문화 유산이다.
- ② 오늘날 로봇이 산업체의 생산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 ③ 민영화로 인해 요금 인상 등 서민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된다.
- ④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번 오염된 환경이 다시 깨끗해 지려면 많은 비용과 노력, 그리고 시간이 든다.

문 7. 올바르게 자연스러운 글을 쓰려고 한다. 오류가 없는 것은?

영어만 잘 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에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다. ㉠한 술 더 떠 일본을 따라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이 만만찮게 들리고 있다. ㉡그러나 영어는 배워서 나쁠 것 없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 ㉢하지만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말이다. ㉣우리말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영어를 들여오는 일은 우리 개구리들을 돌보지 않은 채 황소개구리를 들여온 우를 또다시 범하게 된다.

— 최재천,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

- ① ㉠
- ② ㉡
- ③ ㉢
- ④ ㉣

문 8. 다음 단락을 올바르게 구성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이란 겸허한 자세로 쓸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라든가 무슨 문제를 말할 때 필자의 독단적인 단정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이라든가, ‘세상 여론이 어떻다든가’ 하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필자의 독단적인 단정으로 그 뒤에 따르는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것은 기만이며 또한 죄악입니다. ㉢잘난 체하는 단정은 독자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타당성이 있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모르는 체하는 것도 독자의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할 것이지, 잘난 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문 9. 어법에 맞게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로, 평온하게 그리고 공공연하게 물건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식목, 채엽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 기간은 10년
→ 식목, 채엽 또는 건축(돌, 석회, 벽돌 등으로 된 구조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 기간은 10년
- ③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하라.
- ④ 정의감의 발로나 부당한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범
→ 정의감에서 발생한 폭력 사범이나 부당한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범

문 10. 다음 중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남편의 여동생을 ‘고모’라고 부른다.
- ② 오빠의 아내는 ‘언니’라고 부르고, 지칭어는 ‘올케’이다.
- ③ 누나의 입장에서 남동생의 아내는 지칭어가 ‘올케’이다.
- ④ 남편의 형을 이르는 말은 ‘아주머니’이다.

문 11. 다음은 잘못된 외래어 표기를 고친 예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랑데뷰 → 랑테부
- ② 슈퍼마켓 → 슈퍼마켓
- ③ 콩뜨 → 콩트
- ④ 악세서리 → 악세사리

문 12. 밑줄 친 어휘들 가운데 옳지 않게 쓰인 것으로만 묶인 것은?

열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혼자 낯선 이의 집에서 숙식을 ㉠붙인다는 것은 분명 힘에 부치는 일로 보였다.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말을 붙여 보아도 도통 대답 없이 편지를 부치기 위해 우표를 붙이고 있을 뿐이었다. ㉡붙여 먹을 땅 한 평 없는 데다가 폭력까지 휘둘렀던 삼촌일지라도, 그 아이는 유일하게 그 삼촌에게 정을 붙이고 있었다. 내가 가정 교사를 ㉢붙여 공부에 흥미를 붙이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 같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문 13.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 배는 많은 승객을 싣고 가는 중이다.
- ② 젊은이들은 우리들과 생각이 달라요.
- ③ 그 집은 전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 ④ 산에 오르는데 칩덩굴이 발에 거친다.

문 14. 밑줄 친 겹받침의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을 하늘은 참으로 맑다. [막따]
- ② 감이 익지 않아 대단히 뭉다. [땔:따]
- ③ 우리는 그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일꼬]
- ④ 그는 흥에 겨워 시를 읊고, 장구를 쳤다. [을꼬]

문 15. 맞춤법과 표현이 옳은 것은?

- ① 시간에 얽매어 사는 현대인이 많다.
- ② 그는 다른 차 앞으로 끼여드는 나쁜 습관이 있다.
- ③ 가는 길에 문구점에 꼭 들려라.
- ④ 그 옷에는 안감을 흰색으로 받쳐야 색이 제대로 살아난다.

문 16. 다음 표현 중 옳은 것은?

- ① 물결이 바위에 부딪쳐 부서진다.
- ② 그는 지금 놀러갈 만한 시간적 여지가 없다.
- ③ 뒷수습을 하지 않은 채 뒷꼴무늬를 빼면 어떡합니까?
- ④ 오늘이 몇 월 몇 일이지?

문 17. 다음 글의 내용과 무관한 것은?

그러나 언어가 정보 교환이나 기록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성적 사고를 가능케 하는 표상의 역할도 해 왔을 것이 쉽게 추측된다. 사실상 학자에 따라서는 최초의 언어가 통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고를 위한 표상으로 발생하였으리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정신 세계가 구현되었다고 하는 것은 두뇌의 정보 지각 역량이 충분히 성숙하여 언어를 개발하게 된 것과 때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언어가 출현하여 정보의 체외 기록이 가능해지면 정보의 비축 용량은 거의 무제한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두뇌의 기능은 정보의 보관 기구로서 보다 정보의 처리 기구로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록된 정보를 해독하고 현실에 옮기며 새로운 정보를 기록하는 작업이 모두 두뇌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핵산-단백질 기구와 비교해 보자면, 정보가 기록된 DNA에 해당하는 것이 언어로 표시된 모든 기록 장치, 좀 넓게는 모든 유형 문화가 되겠고, 정보를 해독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단백질에 해당하는 것이 두뇌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DNA 정보가 진화되어 나가는 것과 대단히 흡사한 방법으로 인간의 문화 정보도 진화되어 나간다. 이와 병행하여 언어의 출현은 인간의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특히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해 가는 유형 및 무형 문화는 이미 사회 공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DNA 정보가 중요한 까닭은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로 만들어진 기계적 수단으로 그것을 정확히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정보 기록도 중요하지만, 정보 처리는 더욱 중요하다.
- ③ 정보 지각과 해석에 반성적 사고가 중요하다.
- ④ 핵산도 진화하며 인간 문화 정보도 진화한다.

문 18. 로마자 표기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대관령 - Daegwallyeong
- ② 속리산 - Songnisan
- ③ 합 덕 - Haptteok
- ④ 오죽헌 - Ojukheon

문 19. 밑줄 친 단어의 '사이시옷'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들은 서로 인사말을 주고 받았다.
- ② 아이들은 등곳길이 마냥 즐거웠다.
- ③ 빨랫줄에 옷을 널었다.
- ④ 마곳간에는 말 두 마리가 있다.

문 2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이를 낳으면 엄마는 정신이 없어지고 지적 능력이 감퇴한다는 것이 일반 여성들의 상식이었다. 그런데 올 봄 폴리처상 수상작가인 캐서린 엘리슨이 『엄마의 뇌: 엄마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뇌를 얼마나 영리하게 하는가』라는 책을 써서 뉴욕 타임즈, CBS, NBC, BBS 등의 기사가 된 바 있다. 엘리슨이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은 1999년의 신경과 학자 크레이그 킹슬리 등의 연구결과를 접하고였다.

최근 보스턴 글로브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킹슬리 박사 팀은 몇 개의 실험을 통하여 흥미있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들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엄마쥐는 처녀쥐보다 인지능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후각능력과 시각능력이 급증하고 먹이감을 처녀쥐보다 세 배나 더 빨리 찾았다. 엄마쥐의 뇌의 해마(기억 및 학습 담당)의 신경로가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 같았다고 한다.

엄마쥐가 되면 엄마의 두뇌는 에스트로젠, 코티졸, 기타 다른 호르몬에 의해 마치 목욕을 한 것처럼 된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어미 혼자 내적으로 두뇌의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새끼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두뇌 변화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새끼를 젖먹이고 다루고 하는 과정에서 감각적 민감화와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인지적 능력이 상승한다.

그러면 인간에게서는 어떨까. 대개 엄마가 되면 너무 힘들고 일에 부대껴서 결국은 머리가 켈리처럼 말랑말랑해져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상당 부분 사회공동체적 자기암시로부터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하이오 신경심리학자 줄리에 수어는 임신한 여성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A집단에게는 '임신이 기억과 과제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고 B집단에게는 설명없이 그 과제를 주었다. 그 결과 A집단 임신 여성들이 B집단보다 과제 수행점수가 상당히 낮았다. A집단은 임신하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부정적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아 헤어날지 못한 것이다.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쥐에게서 엄마가 된다는 것은 감각, 인지적 능력 및 용감성 등을 높여준다. 아빠쥐도 새끼와 상호작용하면서 뇌가 더 영리해진다고 한다. 임신한 엄마처럼 아빠의 뇌에서도 관련 호르몬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지금껏 연구는 주로 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인간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가능성은 많다.

- ① 이 글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② 이 글은 임신 및 출산에 따른 뇌 기능의 변화에 관한 실험 결과를 논박하고 있다.
- ③ 임신과 출산의 긍정적 측면은 다양한 호르몬의 분비 및 아이와의 상호작용으로 인지-수행 뇌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 ④ 육아활동을 통해 아빠의 뇌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